

# 주택경기 살아나나

### 광주 지난달 2,416가구 공급

### 전남 이번달 1,514가구 분양

### 비수기 불구 아파트 공급 늘어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광주·전남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을 들뜨게 할 '호재'가 없는 데다, 실물경기 침체 및 수천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선 볼리 시장 상승세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공동주택 신규 공급 물량 1만3천333가구 가운데 광주에서 공급된 물량은 2천416가구로, 수도권(7천641가구)을 제외한 지방(5천392가구) 공급 물량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625가구)보다도 많은 물량으로, 주택공사(입대 1천942가구, 분양 375가구) 등 공공 물량 외에 민간건설사(신아건설 99가구)까지 실수요자를 위한 새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8월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에 1천514가구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서 2만8천474가구의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2천146가구)의 2배가 넘는다.

전남에서는 이달 주택공사가 순천시 가곡동에 571가구

전남 8월중 공동주택 분양계획

사업 유형	업체명	주택건설위치	세대수			
			합계	분양	입대	조합
국민임대	주택공사	순천시 가곡동 가곡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58L (순천가곡)	571	0	571	0
재건축	삼한기업	순천시 매곡동 463번지	795	280	0	515
재건축(주상복합)	삼한기업	순천시 매곡동 446-3번지	148	88	0	60
	소	계	1,514	368	571	575

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삼한기업이 매곡동에 주상복합 등 재건축 아파트 943가구를 분양하는 등 순천에서만 1천514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만 보더라도 주택공사를 제외한 일반 건설사들의 민간 분양 물량이 전혀 없었던 탓에 일각에서는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는 조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잡지 못하는 이렇다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 침체에 두루준공을 이끌어온 주택공사의 공공 물량이 많은데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정치권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여부 등으로 분양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면서 물량이 증가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자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도 여전히 수천 가구에 이르고 실물경기 침체와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 등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비맥주 '카스 씬머 캠페인' 카스의 각 제품 컬러를 상징하는 풀쭉이 의상을 입은 '카스보이'들이 2일 이마트 안양점에서 소비자에게 카스맥주를 홍보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카스 씬머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말까지 '카스보이 할인점 어택'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연다. (오비맥주 제공)

## 의무보호예수 이달 4,200만주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4천200만주가 8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개사 400만주, 코스닥 상장법인 21개사 3천800만주 등으로, 7월 해제물량 1억6천400만주보다 약 74% 줄었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번 달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은 HMC투자증권 하나다. 코스닥시장에선 유진기업, 에스씨디, 삼강엔터, 상화마이

크로텍, 보더스타원, 유비컴, 트루맥스, 엔이씨, 실리론헤일, 동아회원권 그룹 등 21개 종목이다. /연형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외국인 매수세 유입여부 감안

### 화학·건설주 중심 선별적 대응

7월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에 대해 환관승을 거둔 시기였다. 특히 문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주택경기지표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위험자산 선호도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회복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은 급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재확인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1,500선 중반까지 훌쩍 뛰어 올랐다. 월간 기준으로도 12%가 오르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7월 한 달 동안 대만, 중국, 인도 등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 대부분이 두 자릿수 안팎의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들의 급등세에 공명된 배경은 바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다. 2분기 어닝시즌(실적발표 시기)이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로 밀바탕을 깔아주는 했지만, 최근 이머징 마켓의 흐름은 외국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은 13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 7월 한 달 동안에만 6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사들였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주요국에서의 제로금리 혹은 저금리 정책이 유지된다는 확신이 고조되면서 본격적인 캐리 트레이드(차입 거래)성 자금의 물결이 터지는 양상이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지수상승을 이용한 환매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관들은 상승극면에서 철저히 소외되

고 있다.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 부담이나 기술적 부담 등이 모두 수급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시장 대응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외국인의 매수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시가총액이 큰 대형 블루칩들이 상승세를 주도해가고 있지만 그동안의 급등세를 감안하면 추격매수에 선포 나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후발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 및 건설 등을 중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후발주들은 상대적으로 주가부담이 덜한데다가 상반기의 실적부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후발주 그룹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대형IT주나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들의 경우 추격매수보다는 보유물량에 대한 매도시점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해 보이며, 신규매수를 통한 접근은 이들 후발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 여부를 감안한 선별적인 대응을 권한다.



박종모

〈굿모닝 신한증권

광주지점장〉

## 오늘부터 바뀝니다

### 현금지급기 이체 한도 70만원으로 축소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CD/ATM)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3일부터 7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 이체한도는 1일 3천만 원, 1회 600만 원이다. 금융원은 이번 한도축소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 등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종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형뉴스

### 휴대전화 3개월 내 번호이동 안돼

3일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시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른바 '뽕꾸기' 번호이동이 차단돼 혼탁한 통신업계의 가입자 빼가기 경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형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편안합니다 3. 소리를 분명히 들립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42) 227-9940  
 분점: (061) 752-9940  
 (061) 262-9200  
 (061) 851-2422

제주도 세계 평화의 숲 지정 4주년

**2009 Peace Forest Tracking meeting**

**평화의 숲!! 평화의 길!! 트래킹**

자연의 숲 사랑의길에서  
 숲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숲길 2009년

주최: KOREAN AIR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Jeju - 물레길과 평화의 숲**

제주도 평화의 숲 - 물레길(사리호)길

제주도 평화의 숲 - 물레길(사리호)길

제주도 평화의 숲 - 물레길(사리호)길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